

[박스]

어린이 책꽂이

▲히틀러=수백만명을 학살하고 세계 전쟁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히틀러의 삶과 행적을 객관적으로 담았다.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는지,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사람이 독재자로 변해 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만화로 보는 주니어 시사상식= 초·중학교 때 꼭 알아야 할 시사상식들을 일상생활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녹여내 만화로 구성했다. 찬반 양쪽의 입장을 함께 다뤄 학생들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플러스 예감·9천800원>

▲토비터커, 나를 찾아서(제2권)= 어린 시절 한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소설이다. 고아 소년 토비터커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면서 자기 조상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사파리·8천원>

▲명탐정 슈팩로크 홈즈 시리즈(제3권)=설록 홈즈를 모티브로 슈팩로크와 버슨이라는 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추리소설. 제1권이 집트에서 사건을 수사하다, 제2권 마틴 터터를 구하다, 제3권 슈팩로크 홈즈와 동상의 비밀 등 3편으로 구성됐다. <현문 미디어·각 9천500원>

▲미스터리 공포문학도서관=인간의 숨겨진 내면, 극한의 감정 등을 공포문학을 통해 보여준다. 에드가 앨런 포, 마크 트웨인, 찰스 디킨스 등 세계 유명작가들의 무서운 이야기가 무더위를 날려준다. <애들비·1만4천500원>

전통 예술품의 아름다움에 넋 잃다

한국의 미, 최고의... 안취준·정양모 외 지음

해남 고산 윤선도 종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은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눈과 꼬리 부분이 약간 올라간 입매, 힘 주어 다문 두툼한 입술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의 웅골찬 기개를 보여준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학고재)의 저자 혜곡 최순우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라고 감탄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을 가장 잘 묘사한 건축으로 첫손 꼽히는 작품이다.

'한국의 미(美)'를 대표하는 예술품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한국사, 한국미술사, 한국건축사를 전공한 문화계의 내로라하는 35명의 전문가가 펴낸 '한국의 미, 최고의 예술품을 찾아서'(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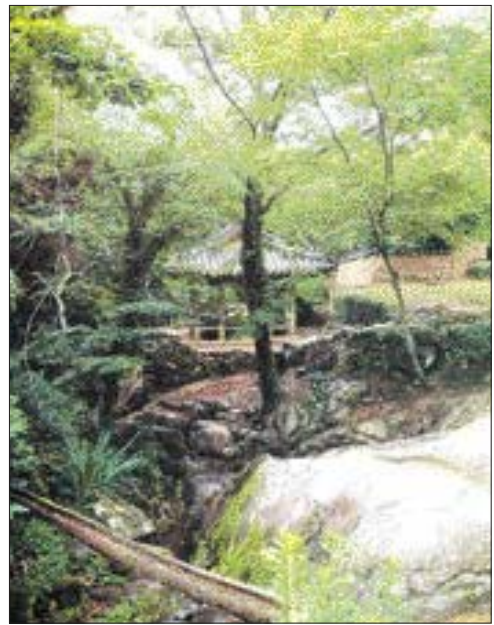
권)는 전통예술품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명품으로 선정한 작품은 모두 40점. 선정 기준은 국제적인 문화 흐름까지도 담고 있는 '국제적 보편성',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적 미감을 가진 '한국적 특수성', 해당 시기의 문화와

고구려 벽화·담양 소쇄원 등 40점 작품에 대한 이해·감상 상세 기록



김홍도의 '씨름'.



담양 소쇄원.



역사와 삶을 담은 '시대적 대표성', 아름다움을 통한 감동을 추구한 '미학적 완결성' 등 4가지다.

1권에서는 회화와 공예를, 2권에서는 조각과 건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필자들은 각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형식미와 양식 설명, 이를 둘러싼 사회·역사·종교 등 중요한 배경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필자들이 선정한 명품은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안건의 '몽유도원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정희의 '불이산란도', '백제금동대향로', '성덕대왕신종', '청자상감운화문매병', '서산만에삼존불', '석굴암 본존여래좌상', '경복궁 경회루·근정전', '선암사 승선교', '구례 운조루' 등이다.

필진으로는 김홍남(국립중앙박물관장), 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장), 홍선표(이화여대 교수),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씨 등이 참여했다.

담양의 소쇄원을 들여다보자. 집필을 맡은 천득염(전남대 건축학과)교수는 광풍각, 제월당 등으로 이루어진 소쇄원이 자연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소박하고 개인적인 정서가 잘 농축된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소쇄원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건물이나 계곡, 나무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벗어나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떨어져 구르는 낙엽까지도 함께 느껴보라"고 권한다.

각 작품을 다루는 글 속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지속해온 필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특히 언급된 40여점의 명품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작품도 함께 실어 독자들이 비교·분석해보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책 말미에는 기획위원 좌담회와 함께 인명과 용어 해설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한국의 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들의 화려한 컬러 도판도 책의 가치를 높인다.

<돌베개·각권 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 권의 책

김지하 '새벽강'

김지하의 '새벽강'(시화). 나는 이 시집을 뒤적이다 눈을 감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시인은 한때 시가 총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 우리 모두 군부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가 낯선 이들과 어깨동무하고 '타는 목마름으로'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눈시울 붉히지 않았던가. 노도처럼 밀려온 민주화 열기가 사회전체를 뒤엎을 때 우리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었다.

'새벽강'에서는 '아! 거기 요행이도 강하나 있어 더 부러울 것 없다'고 외롭고 쓸쓸한 분인을 위로한다. 삶이라는 한계의 짐, 육체라는 한계의 짐, 인식하는 한계의 짐, 그 모든 짐의 무게를 시인은 강물에 던진다. 강물은 곧 시다. 시는 곧 흘러가는 강물이고, 물 위에 오른 배가 저 흐르는 강물 때문에 절망하면서 희망한다.

내가 김지하 선생을 처음 만난 곳은 창덕궁 담을 끼고 있는 싸롱 마고였다. 하얀 머리칼락 속에 검은 머리가 등성등성했고 큰 바위처럼 단단한 표정의 얼굴에는 눈썹이 칼날처럼 표표했다. 따뜻한 빛을 외면하고 살아온 만고공상의 과거 놀라움과 깨달음의 세월이 알았겠는가.

고통의 극점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의 저점을 치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 비천하고 고스런 상처를 남기기를 거부했던 사람. 그는 언제나 거기 있었고 바로 거기서 노

과거 속에 미래 있다



래를 불렀다. 그리고는 떠난다. '나는 광대다. 나는 시인이다. 나는 바람이다.' 밖으로는 생명이고, 안으로는 영성을 추구하며 자기를 조직하는 사람. 그의 시, 그의 노래, 그의 삶이 때론 내 삶의 매커니즘을 돌리는 자양분이고 역동이다.

1941년 목포 출생. 선생의 시집마다 적히는 약력의 첫 글자다. 동학이어서 더욱 친근하고 그 정신이 범접키 어려운 존귀함도 있다.

목포는 문화하는 발이 좋은 인제가 많은데 정치 때문에 좋은 정서가 아니란다. 혼돈적 생명의 질서에 대한 탐구와 예술교육 정신적 향체를 연결시킴으로써 문화 자본주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상의 열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밤은 깊어갔다. '새벽강'이란 책 한 권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었다.

과거가 새롭다.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잃어버린 과거를 찾으면 곧 그것이 밝은 미래이다. 우리 것을 이제 신명나게 찾을 때가 되었다.

나는 주택사업에 더 치중하는 일반건설업자다. 늘 창의적이고 안목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자신을 채찍질한다. 또 사업 환경을 만들어준 사회에 감사하고, 가치있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사유할 수 있어야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독한 혐오감에서 질은 그리움도 배어나오듯 늘 성찰과 죽비를 맞아 정신을 바로 하는 것이 삶을 윤희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상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글로 옮겨본다. 독서만큼 자신을 정화시켜주는 양식 또한 없다고 믿고, 글로써 표현하고 고차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 정신을 그려내는 일생의 흔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송이 꽃잎에 맺힌진 고운 이슬처럼 긴긴 밤 아침을 그리며..."

김홍남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역사의 흐름 바꾼 과학 기술

과학이 세상을... 과학문화재단 엮음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과학의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 나왔다.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획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엮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종민 교수, 한국과학문화재단 나도선 이사장 등 국내 대표 과학자 37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변성된 로마를 상징하는 건축 및 도로에서 제철, 쟁기와 등자, 나침반과 선박, 전기와 원자력,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을 거쳐 레이저나 첨단소재까지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역사적 사건 40여개를 주제 별로 나눠 설명한다. 다양한 컬러 사진과 도표, 삽화 등으로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지만, 어른들의 과학적 상식을 늘리는 데도 손색없다.

<크리에이티브·1만6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비루한 삶, 불편하십니까

조대리의 트렁크 백가흠 지음

등단 7년차인 소설가 백가흠씨가 '귀뚜라미가 온다'(문학동네)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 소설집을 냈다. '조대리의 트렁크'에는 지난 2년여 동안 저자가 부지런히 문예지에 실었던 단편 9편이 실려 있다. '열기'라는 말이 과학이 아닌 정도로 삶의 비루한 이면을 조명했던 저자의 소설, 이번에도 역시 불편하다.

비행 소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그들을 "가족"이라 말하는 노인('매일 기다려'), 갇힌 방에서 애완견과 생선 경쟁을 벌이다 죽어가는 네살 배기 아이('헬컴, 마이!'), 옥탑방에 숨죽이고 서서 건넌 건물의 사위하는 여인을 훑쳐보는 남성('장미빛 발톱') 등은 어쩔지 피하고 싶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다. 이보다 더 끔찍한 삶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야기들에 대한 불쾌한 반응이나 불편한 감정이 사실은 과장된 것 아니냐고 저자는 묻는다.<창비·9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품격 최상의 VIP로 모십니다.

34#48#

010-430-3883 / 010-430-3882

cafe2m 카페검색 마늘주사 후루민을 찾은게요.

http://cafe.daum.net/furumin

062-38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투자하실 경우 영점 원상 및 일반 후지지를 모십니다.